

담론과 자본으로서의 경관

- 도시 경관의 정치·경제적 해석을 위한 이론적 틀 -

박근현* · 배정환**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Landscape as Materialized Discourse and Capital - Political Economic Interpretation of Urban Landscape -

Park, Keun-Hyun* · Pae, Jeong-Hann**

*Land Management and Urban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various discourses of the urban landscape discussed in the fields of new cultural geography, spatial political economy, and landscape architecture in order to propos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interpretation of a contemporary urban landscape. The notion of landscape is a modern idea that separates humans, especially the bourgeois subject, from nature, and then achieves the visual possession of nature. New cultural geographers have studied the political aspects of landscape. According to them, landscape as materialized discourse is "a way of seeing" which includes the vision of the upper class, the imperialistic view, and the masculine and voyeuristic gaze. In addition, spatial political economists have paid attention to the economic aspects of landscape. They have emphasized that the material production of landscape is indispensable in the production of surplus values in the capitalistic system. Thus, we insist focusing dialectically on both the materiality and ideology of landscape.

Key Words: Landscape Theory, Landscape Interpretation, New Cultural Geography, Spatial Political Economy, Materialized Capital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문화지리학, 공간 정치경제학, 조경학에서 논의되어 온 경관론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재해석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생성과 변화를 해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 개념은 인간, 특히 부르주아적 주체를 자연과 분리하여 자연에 대한 시각적 전유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근대적 경관 개념을 수용한 오늘날의 조경은 경관을 실증 과학 혹은 예술의 대상으로 한정짓는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화된 담론'과 '물질화된 자본'으로서의 경관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경관 해석 이론을 제시하였다. 신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한 경관의 사회·정치적 해석

Corresponding author: Jeong-Hann Pa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Tel.: +82-2-880-4877, E-mail: jhannpae@snu.ac.kr

논의들을 검토한 결과, 물질화된 담론으로서의 경관은 지배층의 시각을 담은 ‘보는 방식’이고, 탐험가나 예술가들을 통해 구현되는 제국주의적 시각이며, 남성적·관음적 ‘응시’이기도 하다. 경관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는 공간 정치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경관의 생산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잉여 가치 생산을 위한 필연적 국면이며, 소비 문화의 확산과 함께 경관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관의 물질성과 이데올로기성을 변증법적으로 보아야 하며, 경관과 사회는 존재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주제어: 경관론, 경관 해석, 신문화지리학, 공간 정치경제학, 물질화된 자본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어 기계나 자동차가 아닌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경관에 대한 인식도 변해왔다. 도시 경관이 도시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생태계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으로 지속가능한 자연 경관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경관에 대한 공공의 계획적 접근이 법제화되었고, 2013년 8월 6일 경관법 개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 및 SOC 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민들에게 이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관 관리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학문적으로도 “경관을 명사에서 동사로 바꾸어 생각하자”는 미술사학자 미첼(Mitchell, 1994)의 선언이나, “경관이 문화의 산물인 동시에 문화를 생산하고 비옥하게 만드는 행위자(agent)”라는 코너(Corner, 1999)의 제안에서 드러나듯, 경관의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가 조경학, 건축학, 지리학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관 개념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오늘날 사용되는 경관의 영어 단어 landscape는 17세기 이후 확립된 근대적 사고의 산물이다.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는 경관에도 적용되었으며, 근대 이후 경관 개념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자연을 관찰과 통제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게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 태동 이후 근대 조경은 경관을 그 조성 주체 혹은 관찰 주체인 인간과 분리하여, 부르주아적 주체의 세계관을 경관에 투영하였다”(이정재, 1994). 이후 20세기 조경 역시 경관을 때로는 예술의 대상으로 때로는 과학의 대상으로 보면서 근대적 주·객 이원론을 이어왔다.

따라서 경관은 물리적 환경인 동시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도시에서 경관은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메커니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만 그러한 연관성이 은폐되어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도시에서 경관의 생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과정에 대한 복합적·심층적 이해가 중요하다. 도시 경관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자본주의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경관은 자본주의 도시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경관은 조경학뿐만 아니라, 신문화지리학, 공간 정치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이들 각 분야에서 주목해온 경관의 특성은 다소 상이하다. 따라서 파편적으로 논의되는 경관 이론들을 하나로 엮는 이론적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첫째, 경관 개념의 기원과 변화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신문화지리학, 공간 정치경제학, 조경학에서 논의되어 온 경관론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재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논의들을 담론으로서의 경관론과 자본으로서의 경관론으로 구분하여 도시 경관을 해석하는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경관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준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관 개념의 기원과 변화를 이해하고, 경관의 해석에 관한 기존의 경관론들을 사회정치적,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담론’과 ‘자본’의 관점에서 도시 경관의 정치·경제적 해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구축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헌은 1970년대 이후, 조경학, 지리학, 정치경제학 등 여러 분야의 도시 공간 및 경관 연구들이다. 특히 1970년대 초 서구 사회의 정치·경제적 위기로 등장한 공간정치경제학, 비슷한 시기에 경관을 문화적·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서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기 시작한 신문화지리학,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조경학 분야의 경관 해석 관련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의 사회 인식론과 방법론을 따른다.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 생산 체제인 ‘물적 토대’와 정치적·법적 측면들로 구성된 ‘상부 구조’로 나뉘며(김수행, 2008), 도시 경관은 상품 생산 관계에 의해 생산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상부 구조’로 볼 수 있다.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은 연구 대상에 대한 개체론적·경험

론적 접근을 지양하고 전체와 부분 간의 변증법적 관계에 기반을 둔 '총체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리차드 힐(Hill, 1984: 123-137)의 도시정치경제학 이론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적인 경관 개념을 부정하고 경관의 변화를 사회 발전과 경제 질서 속에 위치시키기 때문에 총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둘째, 숨겨진 정치·경제적 원리를 밝히고자 하기 때문에 구조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정치·경제적 원리의 기원을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역사적이다. 넷째, 기존의 학문 분과성을 부정하는 방법론 자체의 특성 때문에 다학문적 성격을 갖는다.

기존에 경관 해석의 주를 이루어 온 실증주의 또는 인간주의적 방법론은 주로 경관의 현상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어, 경관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경관이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적 의지와 행동을 통해 역사적으로 생산·재생산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학적 경관 해석의 임무는 현상을 발전시키는 본질의 발견에 있다"(이정재, 1993: 34-35).

II. 경관 개념의 기원과 정치·경제적 해석

1. 경관(Landscape) 개념의 기원과 변화

경관을 일컫는 영어 단어 landscape의 고어인 landsape는 본래 "내부의 경작 행위와 형질 변화와 가치 증진에 의해서 비로소 그 범위가 뚜렷이 한정된 일단의 토지"(황기원, 1989: 58), 즉 경제·사회적으로 일정한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¹⁾. Landscape의 개념은 중세 봉건 시대의 토지 경제 체제와 연결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중세의 장원제에서 토지는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지와 농민이 경작하고 거주하는 농민 보유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landscape는 농민보유지 중 경작지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토지를 일컫는 말이다(황기원, 1989: 59). 즉, 중세의 landscape는 주로 '자연적' 경치를 의미하는 근대의 landscape과 달리 인간에 의한 조작이 가해진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였으며, 따라서 지역(region)이나 환경(environment), 장소(place) 등의 개념들과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landscape 개념은 16세기 말~17세기 초 landskip, 또는 landscape로 달라져 오늘날의 표기인 landscape로 정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표기뿐만 아니라 개념상의 큰 변화가 있다. 그 변화의 기저에는 풍경화의 유행과 픽처레스크(picturesque) 운동의 확산이 있었다. "푸생(Nicholas Poussin), 로랭(Claude Lorrain), 로사(Salvator Rosa) 등 이탈리아 고전주의 화가들은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상적인 경관(Arcadian landscape)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풍경화(landscape

painting)'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다. 초기의 풍경화가들은 도덕적 원리·이상의 재현·법칙성이라는 고전주의의 세 가지 원리를 풍경화에 적용하였으며, 경관을 주로 역사적인 주제나 사건의 배경으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이후 반 고옌(Jan van Goyen), 반 루이스델(Jacob van Ruysdael), 호베마(Meunder Hobbema) 등 네덜란드 풍경화가들이 등장하면서, 풍경화는 점차 이야기와 주제가 제거된 낭만주의적 경향을 띄게 된다. 네덜란드 풍경화의 핵심인 '그림과 같은'이라는 의미의 '픽춰레스크' 개념은 예술사에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김진희, 1995: 13-23).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풍경화 모두 경관 개념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탈리아의 풍경화가들은 경관 개념이 내포하는 바를, 기존의 landscape가 의미하던 경제·사회적 토지 단위라는 현실 세계로부터 시각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이상적 경치(scenery)로 바꾸어 놓았다. 한편, 네덜란드의 풍경화가들은 landscape라는 현대적 표기를 만들어내고, 조망으로서의 경관 개념이 적용되는 자연을 이상적 경치에서 현실의 경관으로 확장하였다"(황기원, 1989: 60-61). 이 과정에서 경관은 중전의 생활과 직결된 의미, 즉 환경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고 사물의 외관, 특히 이차원적으로 구성된 회화적 효과를 추구하는 경치로서의 속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즉, 경관 개념이 '현상적 문화 경관'에서 '이상적 자연 경관'으로 해석되었고, 결과적으로 조경의 목표를 후자에 편향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픽춰레스크적 자연관이 공간상에 구현된 형태가 영국의 풍경화식 정원(landscape garden)이다. 자본주의 태동기인 18세기 영국의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은 사냥터, 기존의 정원 등 사유지였던 공간을 자연적인 -정확히 말하면 풍경화 같은- 정원으로 변모시켰다. 이때 경관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황야(wilderness)의 자연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인간에 의해 순화된 자연, 즉 문화화된 자연이었다. 하지만 픽춰레스크 정원에서 이상적인 공간을 만드는 인간 노동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풍경화식 정원에는 문화화된 자연 개념과 자연화된 문화, 즉 정원 사이의 모순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풍경화식 정원의 조성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오피해거나 교묘하게 중화시킨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결과물"(이정재, 1994: 234)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경관 개념의 출현은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을 양분한 근대적 사고의 산물이다(배정환과 조정승, 1999). 객체인 자연과 적절한 거리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경관을 시각적으로 소유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풍경화에 반영된 이러한 시각적 기술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화가들의 '원근법(perspective)'의 발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Cosgrove, 1985: 47). 원근법은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표현함으로써 외부 세계를 자신의 공간밖에 존재하는 독자적 개별 존재로 인

식하게끔 하였고, 이로써 공간은 관찰자의 시각적인 소유물이 된다. 이러한 원근법은 공간을 점유하는 데 필요한 다른 기술들, 즉 건축·측량·지도 작성·도시계획·조경 등과 연관되어 발전하였다. 또한 이 기법은 근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원경은 희미하게 처리함으로써 사물들에 위계적 서열을 부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처럼 원근법은 뛰어난 개인이 중립적 위치에서 자신이 사라진 3차원 공간을 시각적으로 전유(專有)하기 위한 수단, 즉 어떤 특정한 시공간 상에서 시야의 외연을 통제하고 소유하기 위해 개발된 시각적 전유의 기술이다. 이러한 투시적 경관은 인간이 토지에 행사하는 실제 권력을 보충하기 위한 시각적 권력이고 부르주아적 개인의 시야에 군주의 권력을 부여하는 '시각적 기술'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경관이라는 개념에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중립적이고 불투명하게 만들어 버리는 '은폐'라는 측면과 공간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지배하기 위한 '시각적 기술'이라는 측면이 결부된 '부르주아적 주체의 세계관'이 깃들여 있다.

2. 조경학적 경관론의 한계

움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와 보(Calvert Vaux)가 19세기 중엽 뉴욕시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를 설계하면서 조경가(landscape architect)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그것에서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이라는 새로운 전문 분야의 명칭이 파생되었다. 움스테드를 비롯한 초기 조경가들에게 경관은 '주변 지가를 올리고 도시민에게 회복 및 여가의 기회를 주며 계급 화해 및 민주화를 낳는' 공원의 경관을 의미했다. 이때 영국의 목가적 농촌 경관과 풍경화식 정원 양식이 도시 공원의 전형이 되었다(Newton, 1971: 270). 이후 조경은 경관을 감각적 환경에 국한하여 주로 예술의 대상으로 다루어 왔다. 이로써 과거 경관 개념에 내포된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함의가 더욱 은폐되고 탈각되어 경관이 가치중립적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후 도시 경관을 구축해 온 조경·건축·도시설계 분야에서는 경관 형태론 또는 경관 관리론의 입장에서 경관을 다루어 왔다. 이무용(1999b: 97-98)은 조경·건축·도시계획 분야의 경관 연구 동향을 연구 방법론의 차원에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경관의 가시적 형태와 그 형식적 속성에 관심을 두는 '경관 형태론'이다. 이 입장은 경관 미를 객관적 법칙으로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려는 형식미학적 접근으로서, 경관 선호도나 만족도 등 이용자들의 심리학적 반응을 측정하고 규명하는 실증과학적 접근과 맞물려 발전해 왔다. 두 번째는 경관 해석의 주체와 가시적 경관 이면의 내용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경관 의미론'이다. 이 방식은 시각적 형태 이면의 의미나 상징 등 관념적 차원에서 경관의 미학적 우수성 원리를 밝

혀내려는 관념 미학적 접근을 추구한다. 세 번째는 전문가의 시각보다는 일상생활 주체들의 경관에 대한 지각과 체험에 초점을 두는 보다 종합적인 차원의 '경관 체험론'이다. '장소의 이미지', '장소성', '정체성' 등이 경관 체험론의 중요한 연구 개념으로 설정된다. 네 번째는 실용적, 계획적 차원에서 도시 경관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경관 관리를 추구하는 '경관 관리론'이다. 개별 경관 요소들 위주의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의 시각 환경 조성고 효율적이고 개성 있는 미래 도시 환경의 창출을 모색하는 실용적 연구이다.

이렇듯 근대 조경의 태동 이래로 조경 분야는 경관을 대상이나 객체로 분리해 왔다. 경관에 대한 분리적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실증과학의 입장에서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이를 생태학과 연계하여 조경학을 발전시켜 온 흐름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예술의 입장에서 경관을 설계가라는 주체의 창조적 상상력이 발휘되는 대상으로 바라보아 온 흐름이다.

최근의 몇몇 조경가들은 과학-예술 이원론의 굴레와 회화적 자연관에 도전하고 경관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실험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실험들은 이론적으로는 문화지리학, 실천적으로는 대지 예술의 영향을 받았다. 조경이 환경주의를 내세워 맥 하그(Ian McHarg)를 주축으로 한 생태계획적 접근을 추구하는 동안 로버트 스미슨(Robert Smithson),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와 같은 대지예술가들은 자연의 변증법적 특성을 문화와의 연속성 위에 드러내고자 했다. 다양한 소재와 형태를 땅이라는 캔버스에 구현하는 대지예술은 작품을 통해 자연의 변화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분리적·관조적 자연관에 반기를 들었고, 이러한 대안적 자연관은 하그리브스(George Hargreaves)를 비롯한 많은 조경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배정한, 2004: 39-41).

코너(1999)는 경관을 자연 또는 환경과 동일시하는 기존의 관점에 대해 비판하면서, 경관을 설계하고 조성하는 조경이 도시의 문화적 관행에 비판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도시 경관은 단순히 도시의 외관으로서 도시의 사회문화적 과정을 반영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문화적 실천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1990년대 말부터 이론적·실천적 차원 모두에서 논의되어 온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²⁾'을 빼뜨릴 수 없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경관을 현대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로 보기를 요청하며, 도시에서 경관의 역할과 의미를 보다 강조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도시와 경관에 대한 "정신이자 태도이며, 동시에 사고와 행동의 방식"(배정한, 2004: 167 재인용)인 것이다.

하지만 경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주장하면서 등장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의 이론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지리학, 건축학, 도시설계학 등의 인접 분야와 연계되지 못한 채 다소 피상적인 어휘들을 사용하는데 그치고, 실천적으로는 대형 공원과 탈산업화 부지(post-industrial site) 등 특정한 대상지 위주로 접근한 결과 통합적인 설계 언어로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새로운 단어와 이미지를 양산해 내며, 조경 이론과 설계의 상품성을 높이는 데 이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이데올로기적 경관 개념의 관점에서 보자면, 최근의 조경 이론은 도시 경관의 속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여전히 실증주의적 또는 생태주의적 경관 관리론과 주관주의적 또는 예술적 경관론의 이분법 안에 갇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관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즉 대상이 아닌 과정이나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경관을 감상한다는 것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이라는 미첼(Mitchell, 1994)의 선언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시 경관은 경관과 인간 주체 및 사회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도시의 정치적·경제적 관계와 담론의 형성에 있어 경관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경관의 정치·경제적 해석을 위한 최근의 시도들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경(景)’과 보는 주체로서의 ‘관(觀)’의 결합을 의미하는 ‘경관(景觀)’ 개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경관은 가시적 ‘형태’뿐 아니라, 그 이면의 상징적 ‘의미’나 경관에 관한 ‘해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물리적 경관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가 상호 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는 변증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그러한 상호작용을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관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신문화지리학의 사회·정치적 측면, 공간정치경제학 및 도시지리학 분야의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경관에 대한 사회·정치적 해석은 1970년대 이후 태동한 신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주로 도시 경관을 다룬 신문화지리학은 경관을 경험적 탐구의 대상이나 물리적 실체로만 보는 것을 거부하고, “물질화된 담론(materialized discourse)”(Schein, 1997)으로서 경관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경관은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며,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담론을 재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스그로브(Cosgrove, 1984: 1985)는 경관이 부르주아와 개인주의자의 “보는 방법(way of seeing)”이라고 정의하면서, 경관 개념이 역사적으로 특정 사회적 집단에 의해 어떻게 설정되고

의미 부여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니엘스(Daniels, 1989)는 문화적 경관과 회화에서의 경관을 분석하여 경관이 권력과 갈등 등 정치적 작용들을 용해하거나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관념임을 지적한다. 던컨(Duncan, 1990)에 따르면, 경관은 문학 텍스트처럼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쓰이고 읽히는 일종의 텍스트이다. 또한 던컨과 던컨(Duncan and Duncan, 2001)은 경관 보존의 논리가 미학화되는 과정을 다루면서, 도시계획 제도나 환경 보호 정책을 통해 경관이 상류층의 헤게모니와 문화 자본으로 기능하며, 사회적 분리와 배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발견한다.

사회·정치적 담론으로서 경관은 국가와 민족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브레이스(Brace, 1999)는 영국 남중부 지역의 경관이 20세기 초중반 영국의 민족성 형성과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콜로드니와 칼루스(Kolodney and Kallus, 2008)는 이스라엘의 영국 식민지 시기와 국가 건립 시기의 경관 생산 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관이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 형성, 사회정치적 질서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함을 밝히고 있다. 경관은 그 자체로 담론을 둘러싼 긴장을 내포한다(Wylie, 2007).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 이후 문화지리학자들은 성, 인종, 민족, 연령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정체성과 그들의 경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본디(Bondi, 1992), 몽크(Monk, 1992), 내시(Nash, 1996), 브라운(Brown, 2001) 등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경관에 재현되는 방식, 동성애자와 같은 성적 소수자들의 경관 형성 등 성과 경관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보여준다. 한편, 앤더슨(Anderson, 1988)과 쉐인(Schein, 1999)은 차이나타운의 경관과 같이 인종과 민족에 주목하며, 무권력자의 경관을 다루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정치적 경관 해석이 시도된 바 있다. 이무용(1999b)은 ‘근대적 공간-주체-사회’의 변증법적 산물로서 도시 경관을 파악하고, 한국 도시 경관의 근대성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맥락에서 고찰했다. 이치훈(2007)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사에서 경관 변화의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는 과정을 생산 양식의 변화와 과학적 재현 체계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경관에 관한 경제적 해석은 주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서구 사회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배경으로 출현한 공간정치경제학을 이론적 바탕으로 행해졌다. 공간정치경제학자들은 공간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메커니즘을 자본주의의 작동 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공간 생산 및 소비의 과정을 가시적으로 반영한 것이 경관이라는 점에서 공간정치경제학 연구는 도시 경관 연구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공간 정치경제학자들은 도시 경관이 자본의 생산·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비(Harvey, 1973)는 도시의 건조 환경이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 구조에 의해 형성된

다고 주장하면서 도시 현상을 자본의 생산 및 재생산 과정과 연결한다. 한편, 주킨(Zukin, 1991)은 미국의 다양한 도시 경관을 분석하여 경제적 힘이 경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즉 자본축적과 소비체제의 변화에 따라 도시 경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이정재(1993)는 자본주의의 상품화 단계, 즉 생산, 유통, 교환, 소비의 단계에 따라 도시 공간을 나누고, 광양과 평양의 경관을 비교하여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축적 원리가 도시 경관에 어떻게 용해되어 있고, 어떠한 모순을 가지는지 해석하고 있다.

도시 경관은 자본 소비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점점 화려해진다. 도모쉬(Domosh, 1992)는 19세기와 20세기 뉴욕 경관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면, 갈등을 빚어 온 기업가들과 건축·조경설계가들이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과 모더니즘 미학의 영향으로 공존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 도시 경관이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최병두(1994)는 자본주의 도시 공간의 한 측면으로 노동의 재생산 과정을 위한 소비와 이를 반영한 경관을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도시 경관은 자본 축적 과정에 추동되는 상품 미학에 의해 지배되며, 이는 근본적으로 계급적 차별성을 반영하고 재생산한다.

한국의 도시 경관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경관의 상품화와 '스펙터클화'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무용(1999a)은 경관의 상품화, 특히 자본의 이윤 창출과 확대 재생산의 순환 고리에 경관이 포섭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과 이것이 일상 생활에 미치는 의미를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정재(1994)는 서울의 문화 경관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역(liminality)'과 '스펙터클(spectacle)' 개념을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최홍준 등(1993)은 정치경제학적 도시 경관 연구를 통해 도시의 사회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1980년대 서울 도시 경관의 변동을 추적한다. 그들은 서울의 도시 경관을 크게 시선을 끄는 경관과, 존재하지만 시선을 끌지 못하는 경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서울 도시 경관에 내재하는 상품화, 배제성, 단조성, 은폐성, 그리고 계층적 양극성의 논리를 이끌어낸다.

경관의 사회정치적 해석과 경제적 해석을 위한 일련의 시도들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선행 연구들에서 도출된 경관 해석의 관점은 크게 '물질화된 담론'으로서의 경관 해석과 '물질화된 자본'으로서의 경관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담론과 자본으로서의 경관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경관의 정치·경제적 해석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III. 담론과 자본으로서의 경관

1. 물질화된 담론으로서의 경관 해석

문화지리학자인 사우어(Carl Sauer)는 환경결정론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 지리학자들의 landschaft론의 전통을 이어받아 문화 경관(cultural landscape)이라는 개념을 주창하였다(Sauer, 1925). 이 문화 경관 개념에서는 물리적·문화적 형태의 뚜렷한 결합으로 구성된 지역을 경관으로 본다는 점에서 중세의 경

Table 1. Literature review about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nterpretation of landscape

Classification	Author(year)	Main subject	Perspective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Social and political interpretation	Cosgrove(1984, 1985)	Formation of the notion of modern landscape (근대적 경관 개념의 형성)	Landscape as materialized discourse
	Cosgrove and Daniels(1988), Daniels(1989)	Ideology of landscape in paintings and literatures(회화와 문학 속 경관의 이데올로기)	
	Schein(1997), Duncan and Duncan(2001)	Ideology of suburban landscape(교외 도시 경관의 이데올로기)	
	Anderson(1988), Schein(1999), Brace(1999), Kolodney and Kallus(2008)	Local landscape and identity of ethnicities(지역경관과 인종·민족의 정체성)	
	Bondi(1992), Monk(1992), Nash(1996), Brown(2001)	Local landscape and identity of gender(지역 경관과 성적·신체적 정체성)	
	이무용(1999b), 이치훈(2007)	Modernity of Korea urban landscape(한국 도시 경관의 근대성)	
Economic interpretation	Harvey(1973), Zukin(1991), 이정재(1993), 최병두(1994)	Capital circulation and urban landscape (자본의 순환과 도시 경관)	Landscape as materialized capital
	Harvey(1990), Relph(1999)	Post modernism and consumer landscape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경관)	
	Knox(1991), Domosh(1992)	Metropolitan landscape and capitalist ideology(대도시 경관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Zukin(1991), 최병두(1994)	Landscape of consumer culture and capitalism(소비 문화 경관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	
	최홍준 등(1993), 이정재(1994), 이무용(1999a)	Political economic interpretation of Korean urban landscape(한국 도시 경관의 정치경제학적 해석)	

관 개념인 landscape를 연상시킨다. 사우어의 문화경관론은 경관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설명과 해석에 중점을 두며, 특히 인간과 자연 환경 간의 관계의 산물로서 지역 문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문화경관론'이다. 이후 환경 개념을 '사회 환경'으로 확장시켜 사회 체계의 변동과 도시 형태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사회적 문화경관론'이 등장하였다³⁾. 이 이론은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는 도시 형태와 일상 경관을 주로 연구하면서 '도시형태학'의 연구 흐름을 형성하였다.

반면, 문화경관론이 여전히 전-산업사회나 산업사회 초기의 지역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부르주아적 경관 관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도시 경관을 중심으로 경관의 의미와 재현, 그리고 경관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일군의 신문화지리학자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경관을 경험적 탐구의 대상, 물질적 실체로만 보는 것을 거부하고, 물질화된 담론(materialized discourse)으로 여긴다(Schien, 1997: 663).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공유된 의미이자 이데올로기이며, 일련의 획득된 '상식'"(Duncan, 1990)을 의미하는 담론(discourse)은 경관의 물리적 형태를 통해 스스로의 의도와 이데올로기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신문화지리학은 경관의 시각적 특징들과 문학·사진·매체 등 예술 속 경관의 재현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문화적·정치적·경제적 권력의 반영으로 이해한다. 코스그로브는 경관을 세계를 보고 재현하는 문화적 방식으로 인식하면서 '보는 방식(a way of seeing)'이라고 정의한다(Cosgrove, 1984: 13). 이러한 경관 개념의 역사적 기원은 원근법의 발명과 부르주아적 토지관의 형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학적 시각과 분리된 주체를 상징하는 원근법의 '권한 부여'와 부르주아적 주체의 등장에서 토지를 소유한 부르주아의 의도를 반영한 세계관으로 작용한다. 이로써 철학적으로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은 근대의 주체-객체 인식론적 모델의 공범자이자 표식"(Wylie, 2007: 59)이 된다.

와일리(Wiley, 2007: 55-93)에 따르면,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은 크게 베일(veil)로서의 경관, 텍스트(text)로서의 경관, 응시(gaze)로서의 경관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경관이 베일 또는 커튼과 같이 무언가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초기의 신문화지리학자인 코스그로브, 다니엘스 등은 진정성이나 본질을 추구하는 인간주의 지리학에 대해 역사적 근시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때때로 경관은 그 거주민의 삶을 위한 환경이기보다는 그들의 투쟁·성취들을 가리는 커튼"(Berger and Mohr, 1982: 12-13)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와 버거(John Berger)의 비판적 문화비평의 영향을 받아 경관이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며, 실재하는 환경인 동시에 재현된 이미지라고 본다. 즉, "경관은 문화적

이미지이며, 환경을 재현하고 구성하고 상징화하는 회화적 방식이지만, 이는 경관이 비물질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공원이거나 숲과 같은 물리적 환경이든 그것이 재현된 풍경화나 사진이든 모두 경관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실재적인 동시에 상상적(real and imaginary)이다"(Cosgrove and Daniels, 1988: 1).

과거로부터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정당화하기 위해 경관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경관은 그 시기 지배적 담론의 체현물이자 거주민의 일상적 삶을 가리는 베일이다. 미국의 도시미화운동의 일환으로 조성된 워싱턴몰이나 히틀러 지휘 하의 베를린 도시계획에서 공통적으로 강한 축을 설정한 것은 경관이 권력의 가시화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 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김영삼 정부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한 것, 군사정권 하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종로에 설치된 데 반해, 문민정부에서 여의도 광장을 공원으로 바꾸면서 세종대왕 동상을 배치한 것 등은 지배층이 바뀌면서 도시 경관 형성에 개입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경관 연구는 프랑스 문학비평가 바르뜨(Roland Barthes)의 기호학의 영향으로, 경관을 그 의미가 창조되고 변경되고 정교해지고 삭제되기도 하는, "워드프로세서 화면에 나타난 텍스트"(Cosgrove and Daniels: 1988: 8)로 바라본다. 던컨(Duncan, 1990)은 스리랑카의 전통적인 도시 경관 변화를 연구하여 경관 텍스트론을 전개하였는데, 그는 경관을 조성하는 이들이 그 경관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가, 만들어진 경관을 해석하는 이들이 그것에서 어떠한 의미를 읽어내는가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경관 텍스트론은 경관의 이데올로기적 기능보다 경관의 저자와 독자 또는 해석에 관심을 갖는다. 베일로서의 경관 개념에서 경관의 재현이 특정 엘리트 계층의 세계관을 영속시키는 방식을 강조한 것처럼, 텍스트로서의 경관 개념에서는 경관이 문화적 권력의 표현으로 이해되는 방식을 탐구하고, 경관에 대한 독해가 주로 문화적 엘리트에 의해 행해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도시 경관의 텍스트는 주체가 특정한 의미 구조를 삽입하고 독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경관을 만든 이들의 '의도된 의미'와 보는 이들의 '해석된 의미'가 맞물려 발생하는 '복합적 의미'로 구성된다. 김왕배(2000: 133-144)는 텍스트로서의 도시 경관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쌍방향의 복합적 의미를 파악할 것, 개인적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적 차원에서 해석할 것, 정치경제적 맥락 특히 권력 관계에 초점을 둘 것, 토착적이고 일상적인 경관에도 눈을 돌릴 것"을 강조한다.

신문화지리학자들 중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영국의 페미니즘 지리학을 중심으로 경관, 성, 그리고 시각적 재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와일리(Wiley, 2007: 55-93)는

이러한 연구가 경관에 대한 남성적 '응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응시로서의 경관"에 대한 관점이라고 명명한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 사실상 남성은- '지구=어머니'의 은유에서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여성의 몸에 빗대어 이해해 왔으며, 여성의 몸으로서 경관은 탐구·정복·통과·이해의 영역이 되었다. 로즈(Rose, 1993: 87-92)는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응시로서의 경관 개념을 발전시켰다. 여성을 이미지로, 남성을 관찰자로 상징하는 관음증은 경관에도 적용되어 응시의 대상인 경관을 대상화시키고, 거리·객관성·중립성이라는 형태의 억압을 경관에 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남근적(phallic) 어머니와 회색하는 어머니라는 모순적 시각으로 보는 자아도취증(narcissism)은 '영웅적 현장 조사자'와 '여성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미학적 코드화를 통해 경관에 대한 응시를 구축한다.

이러한 남성적 자연관은 도시 내 자연의 이데올로기, 즉 환경주의 담론과 공원 담론 등에도 적용된다. 인간과 자연, 도시와 자연의 구분을 통해 자연에 주어지는 - 여성적- 가치는 역설적으로 자연에 대한 - 남성적- 인간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각종 개발을 탈정치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그린벨트 지정·환경 보호 정책 등의 공간적 분리와 배제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Duncan and Duncan, 2001). 도시 내의 '통제된 자연'인 공원 역시 남성적 자연관,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자연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공간이다. 공원에서 바비큐 파티·집회·축제 등 자유롭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공원은 단순한 도시 내 '빈 공간'이나 시민들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 피크닉과 산책 등 수동적인 휴식이 권장되는, 지극히 통제된 공간인 것이다. 근대 이후 조성된 공원은 이 외에도 지가 상승, 노동자들의 탈정치화 및 계급 갈등 완화 등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부여받아 왔다.

베일로서의 경관, 텍스트로서의 경관, 응시로서의 경관이라는 세 가지 접근은 경관이 본질적으로 시각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경관은 사회경제적 상류층의 시각을 담은 '보는 방식'이고, 때로는 유럽 탐험가·예술가·지도 제작자의 작업 장식이 담긴 제국주의적 시선이며, 남성적·관음적·자아도취적 응시이기도 하다. 물질화된 담론으로서의 경관론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정리하자면, 담론으로서의 경관론은 경관이 고정된 대상일 뿐 아니라, 과정이자 관계이며, 외적인 형태인 동시에 의미 체계이자 재현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경관 연구의 초점을 경관 형태와 질서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읽어내려는 노력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물질화된 자본으로서의 경관 해석

1960년대 말 서구 사회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배경으로 출현한 공간 정치경제학에서는 공간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메커니즘을 자본주의의 작동 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자본주의는 그 자신을 지속적으로 존립시키기 위해서 도시 공간의 생산 및 재생산을 필연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Lefebvre, 1978). 공간정치경제학에서 도시는 산업 생산과 축적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노동력·교환·소비의 측면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지점으로 간주된다(Soja, 1993). 이 때 자본주의의 생존이 부분적으로 경관의 생산에 의존하고 생산된 경관이 자본주의 발전 경로를 결정적으로 바꾸기도 한다는 점에서, 자본 축적 및 순환의 각 단계에 따른 도시 경관의 생산 과정에 관한 연구가 중요시된다.

코스그로브, 다니엘스, 던컨 등 신문화지리학자들이 경관이 재현을 통해 소비되는 방식에 주목한 반면, 공간정치경제학자들은 경관이 생산되는 방식이 경관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본

Table 2. Interpretation of landscape as materialized discourse

Classification	Research	Discussions
Landscape as veil	Berger and Mohr(1982), Cosgrove(1984, 1985), Cosgrove and Daniels(1988), Daniels(1989)	Landscape roles as a veil or a curtain, (경관이 베일이나 커튼과 같이 무언가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봄) Landscape is a cultural image, a pictorial way of representing, structuring or symbolising surroundings. (경관은 환경을 재현하고 구성하며, 상징화하는 문화적 이미지이자 회화적 방식임)
Landscape as text	Cosgrove and Daniels(1988), Daniels(1989), Duncan(1990), Schein(1997), 김왕배(2000)	Landscape is 'a flickering text displayed on the word-processor screen' whose meaning can be created, extended, altered, elaborated and finally obliterated. (경관을 그 의미가 창조되고 변경되고 정교해지고 삭제되기도 하는, '워드프로세서 화면에 나타난 텍스트'로 보고, 경관의 저자와 독자 또는 해석에 관심을 가짐) Interpretation of landscape as a written text raises questions about authorship and readership. Who has written the landscape? How will the landscape be read? (경관을 조성하는 이들이 그 경관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가, 만들어진 경관을 해석하는 이들이 그것에서 어떠한 의미를 읽어내는가에 주목함)
Landscape as gaze	Bondi(1992), Monk(1992), Rose(1993), Nash(1996), Duncan and Duncan(2001), Brown(2001)	Historically, in masculine gaze upon landscape, women represent the enticing and inviting land to be explored, mapped, penetrated, and known. (경관에 대한 남성적 '응시'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몸으로서 경관이 탐구·정복·통과·이해의 영역이 됨을 밝힘) With 'distance' and 'neutrality' of modern notion of landscape, the masculine intervention to environments can be existed within the aesthetic coding of 'woman' as 'nature.' (자연에 대한 남성적 개입은 근대의 관조적·탈정치적 경관 개념과 함께 '여성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미학적 코드화를 통해 존재함)

다(Mitchell, 1994: 9). 특히 텍스트로서의 경관 개념은 경관 생산의 과정을 간과한 채 이미 읽기 쉬운 상태의 경관들을 상징한다고 비판받는다. 일례로 올위그(Olwig, 1996)는 토지와 영역으로서의 경관과 경치로서의 경관을 구분하면서 코스그로브와 다니엘스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탈물질화(dematerialisation)’의 특성을 비판한다. 또한 신문화지리학은 경관을 주로 특정한 정체성이나 문화적 재현으로 보는데, 이는 경관 그 자체의 물질성과 정치적·경제적·환경적 관계를 간과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반대로 물리적 경관을 문화적 의미와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이원론이 될 수 있으며, 문화·이데올로기가 배제된 경관을 상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자본으로서의 경관 해석’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경관의 물질성과 이데올로기성을 변증법적으로 볼 것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의미가 경관을 형성하고 물리적 경관이 ‘맥락’으로서 다시 새겨진다고 본다.

공간정치경제학의 경관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첫째, 자본 축적 및 순환 과정에 따른 도시 경관의 형성이다. 자본주의에서 상품은 생산, 유통, 교환, 소비의 회전 과정을 거친다. 이 때 각 과정은 도시 공간상에 물적 토대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 생산의 공간으로서의 공업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시가지가 분화되고, 시가지는 다시 소비의 장과 소비를 매개하는 교환의 장으로 나뉘며, 생산지에서 소비지로의 상품 운반을 위한 유통 공간이 생겨난다. 이러한 도시 공간의 분화에 따라 경관 역시 상이한 양상을 띤다(이정재, 1993: 41-43, 52-54). 따라서 자본주의 도시 경관은 자본 축적을 위한 순환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물적 토대이다(Harvey, 1973: 178).

자본은 한편으로 상품의 생산과 소비 공간을 전 지구적 규모로 분화·확대시켜 나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과정의 각 부분들 간, 그리고 생산과 소비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장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자본과 노동의 지리적 분화와 집중 사이의 교차는 도시 공간의 불균등 발전을 낳는다(Smith, 1984). 자본의 고정성과 유동성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인 “공간적 돌파(spatial fix)”⁴⁾로 인해 도시의 경관은 분절화되고 파편화되는 양상을 띤다. 하비는 자본주의의 발달이 물리적 경관에 대한 과거 자본 투자의 교환 가치를 보존하는 것과 새로운 축적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경관을 파괴하는 것 사이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말하면서, 도시 경관을 특정한 순간에 자본이 창조하는 이미지로 묘사한다(Soja, 1993: 133-134 재인용).

특히 오늘날 도시의 쇠퇴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도시들은 경관의 파괴와 재생산을 통해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시도, 즉 조경 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도시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하비의 용어를

빌자면 “경관적 돌파(landscape fix)”로 볼 수 있다. 경관적 돌파를 통해 도시의 불균등 발전과 과잉 축적의 위기가 일시적으로 해소되며, 이는 끊임없는 경관 파괴와 재형성의 과정을 낳는다.

둘째, 기업과 소비 문화를 반영하는 도시 경관의 관점이다. 도시는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가 반영된 소비의 공간이며, 이는 도시 경관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단순히 상품 소비를 위한 장으로서의 경관이 아니라 공간과 경관 자체가 직접 소비되기 시작한다. 하비(Harvey, 1990)에 따르면, 포디즘(Fordism)의 경직성을 뛰어넘기 위해 회전시간을 가속화한 유연적 축적 체계가 대중 시장에서 수명이 짧은 문화 생활 방식과 위락 활동을 상품화하여 소비의 속도를 가속화시켜 새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현란한 상품 전시와 화려한 광고판은 소비자의 감각을 자극하고 마비시키며, 그들의 관심을 더 많은 소비로 유도한다. 경관의 ‘미학적 차별성’이 강조되며 필요의 원칙보다 욕망의 원칙이 지배하는 경관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경관의 상품화는 거시적 규모의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미시적 단위의 일상적 삶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 경관 속으로 자본의 논리가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상품화된 경관은 이 경관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도시적 삶과 일상 경험을 차등화하며, 그 차별은 곧 도시 경관의 이용과 전유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된다(최병두, 1994).

포스트모더니즘 도시 경관의 특징으로 스펙터클(spectacle)과 역 공간(liminal space)의 경관을 들 수 있다. 가장 가시적인 소비 문화 경관 중 하나인 스펙터클 경관은 자본의 대량 생산된 이미지이다(Harvey, 1990). 드보르(Debord, 1983)에 의하면, 스펙터클은 “하나의 이미지가 될 정도로 축적된 자본”을 의미하며, 경제적 생산이데올로기의 물질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생산의 범위를 넘어 소비 의식에 대한 지배의 물질적 표현이다. 오늘날의 스펙터클 경관은 도시 재개발 사업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 단기간의 가시적 효과를 위해 기념비적인 도시 경관·건축물·이벤트의 조성으로 나타난다. 전통적 도시 경관이 관광 명소이자 대량 소비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역사적 의미·사회적 맥락·일상의 경관보다는 상품화·미학화가 가능한 프로그램, 건축물, 경관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또한 역 공간은 사적 공간의 확대와 공공 공간의 축소 과정에서 벌어지는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 소멸 과정을 일컫는 개념이다(Zukin, 1991). 소비경관은 소비와 유통의 공간인 동시에 문화적 공간이자 공적 공간이며 노동의 공간이기도하다는 점에서 역 공간의 성격을 띤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의 상업 광고, 지하철역과 연계된 백화점, 거리 축제, 대규모 빌딩

의 공공 공간 등이 도시 내 역의 경관이다. 또한 “도시 내 공원 등 공공 공간이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자연과 인공,’ ‘장소와 시장’의 역 공간이 되고 있기도 하다”(최정민, 2006: 57). 이러한 소비 문화 경관에는 지금의 사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중립적인 사회라는 이데올로기가 드러나고 있으며, 자본의 모순을 시각적 상징으로 은폐하는 부르주아적 경관 개념이 감추어져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지방화의 국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시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른바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을 위한 일련의 도시 개발 전략이 구사되기 시작했다. 특히 기존 도시 및 장소의 경관과 이미지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문화 전략이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이라는 장소의 상품화·차별화 전략이다. 하지만 마케팅을 통해 팔리는 이미지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이미지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살아 있는 삶의 현장으로부터 형성된 것인데, 그것이 상품화되면서 어떤 특정 부문, 즉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이미지나 경관만이 상징 조작됨으로써 문화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도시를 대표하는 경관 이미지를 선정하는 문제, 그러한 이미지로 혜택을 보는 집단과 소외 당하는 집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중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미명 하에 장소마케팅이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서 이용되기도 한다. 물질화된 담론으로서의 경관론을 정리하면 Table 3와 같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시 경관에 관한 기존의 경제적 연구는 주로 소비 문화와 관련된 경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경관이 공간, 주체, 사회의 변증법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공간, 주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도시 경관에 대한 해석은 소비 문화로 국한되기 보다는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측면 모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도시 경관은 끊임없이 변해 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새로운 주거 문화, 새로운 도시 재개발 방식, 새로운 외관의 스펙터클과 소비 문화가 생겨날 것이고, 그에 따라 도시 경관 역시 바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완전히 새로운 경관의 생성이 아니라, 이전의 ‘물질화된 담론’ 위에 쓰이는 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공간 구조와 경관을 바꾸는 행위인 조경은 기존의 담론을 변형하거나 파괴하고 재형성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도시 경관의 생성과 변화를 파악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관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경관을 ‘물질화된 담론’으로 바라보는 논의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경관의 가시성으로 인해 도시의 주체와 권력은 경관의 전유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다. 따라서 도시 개발 및 재생 사업에서 경관을 둘러싼 담론들이 제대로 고찰되지 않고 때로는 묵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속에서 조경이 만드는 자연과 공원은 ‘지가를 올리고, 계급 갈등을 완화하고, 개발을 정당화하며,’ 이로 인해 비판적 담론들을 잠재우는 근대적 역할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조경은 신개발주의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여 경관의 상품화와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촉진하기도 한다.

Table 3. Interpretation of landscape as materialized capital

Classification	Research	Discussions
Urban landscape reflecting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and circulation	Harvey(1973), Zukin(1991), Knox(1991), Domosh(1992), 이정재(1993), 최병두(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Urban landscape is formulated by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of capitalism. (도시 경관은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고 봄) The circuit of commodity capital produces particular urban landscapes at each stage. (자본주의의 상품화된 단계(생산, 유통, 교환, 소비)에 따라 도시 경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모순을 가지는지에 집중함) The strategy of ‘spatial fix’ - the spatial destruction to overcome the inherent crises of overaccumulation in capitalism - make urban landscape segmented and fragmented.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간적 전략인 공간적 돌파로 인해 도시 경관이 분절화, 파편화되는 양상을 띠)
Urban landscape reflecting consumer culture	Relph(1987), Harvey(1990), Zukin(1991), 최홍준 등(1993), 최병두(1994), 이정재(1994), 이무용(1999a)	<ul style="list-style-type: none"> Urban landscape is a visual representation of consumer culture of capitalism. (도시 경관을 자본주의 소비 문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으로 봄) Commercialized landscape draw a line and differentiate urban lives between people who are eligible and not. (상품화된 경관은 이 경관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도시적 삶과 일상 경험을 차등화함) Capitalist cities produce ‘spectacle’ landscape - a capital at such a degree of accumulation that becomes image. (자본의 대량 생산된 이미지로서 스펙터클 경관에 주목함) The blurring of boundar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 is called a state of “liminality.”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의 소멸되는 역 공간의 경관에 주목함) Place marketing as a strategy for commercialization of landscape includes only dominant discourses while excluding minor opinions of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people. (경관의 상품화·차별화 전략으로 도입되는 장소 마케팅이 정치·경제적 지배 담론을 담고 있으므로 다양한 담론이 배제될 수 있음을 지적함)

본 연구는 또한 현대 자본주의 도시에서 자본이 어떻게 경관으로 표출되는 지 살펴보았다. 축적의 위기에 봉착한 자본은 '경관적 돌파', 스펙터클과 역 경관의 조성 등 다양한 전략으로 도시 경관을 재조직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도시 재생 사업은 자본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경관적 돌파'의 일환일 수 있으며, 새로 만들어지는 소비의 경관들은 기존의 경관을 인정하고 덧입혀지는 방식보다는 이를 제거하는 파괴적 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경관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경관을 단순히 도시의 시각적 외피로 보고 경관의 물리적·심미적 변화에 한정해서 보는 관점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조경이 만들어 내는 경관의 변화가 정치·경제적 변화의 반영인 동시에 원인이 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문화지리학·공간 정치경제학·조경학 등 여러 분야의 논의들을 한 가지 틀로 종합하려는 시도는 각 분야의 방법론적·개념적 차이들을 정확히 고려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들을 극복하고 통합적 경관 이론을 구축하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실제 도시 경관의 정치·경제적 해석을 위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보다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방법론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주 1. 이 용례는 영어 외에도 인도·유럽어계의 유럽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독일어의 *landschaft*, 네덜란드어의 *landschap*, 스웨덴어의 *landskap*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황기원, 1989: 58).

주 2.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개념은 1997년 찰스 왈드하임(Charles Waldheim)의 주도로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Landscape Urbanism'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파악된다. 이 심포지엄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입장에서 경관을 도시의 기반시설로 이해할 것'을 선언한다. 이후 조경 이론, 실천, 교육 등 다방면에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여전히 진행 중인 담론이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Charles Waldheim ed.(2006)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김영민(역),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7.

주 3. 사회적 문화경관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Peter Jackson, Donald William Meinig 등이 있다.

주 4. 하비의 '공간적 돌파(spatial fix)' 개념은 자본이 공간환경의 구성을 통해 과잉 축적의 위기를 해소하려는 자본 축적의 전략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Bob Jessop (2006) *Spatial fixes, temporal fixes and spatio-temporal fixes*. In Noel Castree and Derek Gregory eds., *A Critical Reader: David Harvey*. Oxford: Blackwell, pp.121-141.

인용문헌

1. Anderson, Kay(1988) Cultural hegemony and the race-definition process in Chinatown, Vancouver:1880-1980. *Environment and Planning D* 6: 127-149.

2. Berger, John and Jean Mohr(1982) *Another Way of Telling*. New York: Pantheon.

3. Bondi, Liz(1992) Gender symbols and urban landscap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6: 17-70.

4. Brace, Catherine(1999) Finding England everywhere: Regional identity and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1890-1940. *Ecumene* 6(1): 90-109.

5. Brown, Michael P.(2001) *Closet Space: Geographies of Metaphor from the Body to the Globe*. New York: Routledge.

6. Charles Waldheim ed.(2007)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김영민(역),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7. Choi, Byong-doo(1994) Political economy of capitalist urban spaces. *Cultural Science* 94(Spring): 157-182.

최병두(1994) 자본주의 도시공간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 94(봄): 157-182.

8. Choi, Hong-jun, Yong-jun Choi, Yong-chang Kim, Dong-hui Ku and Jeong-jae Lee(1993) Understadning of Seoul urban landscape. In Research Group of Korean Space & Environment ed., *Seoul Studies: Flexible Industrialization and New City/Society/Politics*. Seoul: Han-ul, pp. 412-436.

최홍준, 김용창, 구동희, 이정재(1993) 서울 도시 경관의 이해(한국공간환경 연구회 엮음, "서울연구-유연적 산업화와 새로운 도시·사회·정치"). 서울: 도서출판 한울, pp. 412-436.

9. Choi, Jung-min(2006) Landscape Architecture of Neo-liberalism Era. In *Landscape Criticism* Bom ed., Bom, *Landscape Architecture/Society/Design*. Paju: Jo-kyung, pp. 34-61.

최정민(2006) 신자유주의 시대의 조경(조경비평 봄 엮음, "봄, 조경 사회 디자인"). 파주: 도서출판 조경, pp. 34-61.

10. Corner, James(1999) Introduction: Recovering landscape as a critical cultural practice. In James Corner ed., *Recovering Landscap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1-26.

11. Cosgrove, Denis and Stephen Daniels eds.(1988) *The Iconography of Landscapes: Essays on the Symbolic Representation, Design and Use of Past Enviro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 Cosgrove, Denis(1984)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 London: Croom Helm.

13. Cosgrove, Denis(1985) Prospect, perspective and the evolution of the landscape idea.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0(1): 45-62.

14. Daniels, Stephen(1989) Marxism, culture, and the duplicity of landscape. In Richard Peet and Nigel Thrift eds., *New Models in Geography: The Political-Economy Perspective 2*. Boston: Unwin Hyman, pp. 196-220.

15. Debord, Guy(1983) *Society of the Spectacle*. 이경숙(역), 스펙터클의 사회.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6.

16. Domosh, Mona(1992) Corporate cultures and the modern landscape of New York City. In Kay Anderson and Pay Gale eds., *Inventing Places: Studies in Cultural Geography*. Longman Cheshire: Willey Halsted Press, pp. 72-86.

17. Duncan, James S. and Nancy Duncan(2001) The aestheticization of the politics of landscape preserv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1(2): 387-409.

18. Duncan, James S.(1990)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an Kind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 Harvey, David(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최병두(역), 사회정의와 도시. 서울: 종로서적, 1983.

20. Harvey, David(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구동희, 박영민(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4.

21. Hill, Richard C.(1984) Urban political economy: Emergence, consolidation and development. In Michael P. Smith ed., *Cities in Transformation: Class, Capital and the State*. CA: Beverly Hills, pp. 123-137.

22. Hwang, Kee-won(1989) A treatise on the definitions of ambiguous landscap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17(1): 55-68.
황기원(1989)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17(1): 55-68.
23. Jessop, Bob(2006) Spatial fixes, temporal fixes and spatio-temporal fixes. In N. Castree and D. Gregory eds., *A Critical Reader*: David Harvey. Oxford: Blackwell, pp. 121-141.
24. Kim, Jin-hui(1995) A Study on 'Picturesque,' Beauty of English Landscape Garden. Master's Degree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진희(1995) 영국 풍경식 정원의 미 '픽처레스크'에 대한 연구: 미적 개선과 정원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Kim, Su-haeng(2008) A Luminous Explanation of Political Economy (2nd ed.).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김수행(2008)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제 2개정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6. Kim, Wang-bae(2000) City, Space, Life-world. Seoul: Han-ul.
김왕배(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서울: 도서출판 한울.
27. Knox, Paul L.(1991)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Economic and sociocultural change and the transformation of metropolitan Washington, DC.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1(2): 181-209.
28. Kolodney, Ziva and Rachel Kallus(2008) The politics of landscape (Re)production: Haifa between colonialism and nation building. *Landscape Journal* 27(2): 173-189.
29. Lee, Chi-hun(2007) A Study on Social Conditions of Landscape Transition. Master's Degree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이치훈(2007) 경관변화의 사회적 조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Lee, Jeong-jae(1993) Political Economic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a Townscape. Master's Degree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정재(1993) 소도시 경관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전남 광양시 광안면 시가지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Lee, Jeong-jae(1994) Urban cultural landscape. *Cultural Science* 5: 231-246.
이정재(1994) 도시 문화경관. *문화과학* 5: 231-246.
32. Lee, Mu-yong(1999a) Commercialization of urban landscape and cultural politics. *City and Poverty* 24: 54-64.
이무용(1999a) 도시 경관의 상품화와 문화정치. *도시와 빈곤* 24: 54-64.
33. Lee, Mu-yong(1999b) Modernity of Korea urban landscape: to broaden the horizon of landscape research. *Geography of Culture & History* 11: 95-119.
이무용(1999b) 한국 도시 경관의 근대성- 경관 연구의 평지 확대를 위하여. *문화역사지리* 11: 95-119.
34. Lefebvre, Henry(1978) *The Survival of Capitalism: Reproduction of the Relations of Production*. London: Billing & Sons.
35. Mitchell, Don(1994) Landscape and surplus value: The making of the ordinary in Brentwood, CA. *Environment and Planning D* 12: 7-30.
36. Mitchell, W. J. T.(1994) Introduction. In W. J. T. Mitchell ed., *Landscape and Pow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4.
37. Monk, Janice(1992) Gender in the landscape: expressions of power and meaning. In Kay Anderson and Fay Gale eds., *Inventing Places: Studies in Cultural Geography*. Longman Cheshire: Willey Halsted Press, pp.123-138.
38. Nash, Catherine(1996) Reclaiming vision: Looking at landscape and the body. *Gender, Place and Culture* 3: 149-169.
39. Newton, Norman T.(1971) *Design on the Lan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40. Olwig, Kenneth(1996) Recovering the substantive nature of landscap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6: 630-653.
41. Pae, Jeong-hann and Jung-song Cho(1999) Landscape design and pictorialized view on nature: A critical examina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7(3): 80-87.
배정환 조정송(1999) 조경 설계와 회화적 자연관의 문제. *한국조경학회지* 27(3): 80-87.
42. Pae, Jeong-hann(2004) *Theory and Critical Practice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Seongnam: Jo-kyung.
배정환(2004)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성남: 도서출판 조경.
43. Relph, Edward(1987) *The Modern Urban Landscape*. 임동국(역). 근대 도시 경관. 서울: 태림문화사, 1999.
44. Rose, Gillian(1993) *Feminism and Geography*. Cambridge: Polity Press.
45. Sauer, Carl(1925) *The morphology of landscape*.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Geography 22: 19-53.
46. Schein, Richard H.(1997) The place of landscape: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an American scen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7(4): 660-680.
47. Schein, Richard H.(1999) Teaching 'race' and the cultural landscape. *Journal of Geography* 98: 188-190.
48. Smith, Neil(1984) *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 New York: Basil Blackwell.
49. Soja, Edward(1993) *Postmodern Geographies*. 이무용 외(역), *공간과 비관사회이론*. 서울: 시각과 언어, 1997.
50. Wylie, John(2007) *Landscape*. New York: Routledge.
51. Zukin, Sharon(1991) *Landscape of Power: from Detroit to Disney Worl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원 고 접 수 일: 2013년 11월 20일
심 사 일: 2013년 12월 9일(1차)
게 재 확 정 일: 2013년 12월 10일
3 인 의 명 심 사 필